

헌신과 부활의 달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헌신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March 20, 12:30 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교독문 17번 - 시편 29편 찬 송 / 27장 - 빛나고 높은 보좌와 / 1, 2 절 (통일찬송 27장)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기도 / 박진성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송 / 337장 -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통일찬송 363장) 찬 송 / 370장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일찬송 455장) 봉 헌 / 구은강 집사, 유덕하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 누가복음 14:15-27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자답게 살기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324장 -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통일찬송 360장)
살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골로새서 2:1-5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3월은 “**헌신과 부활의 달**”입니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말씀과 함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와 더 많은 나눔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의 상을 받으시다.
- 선교주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 사순절 새벽집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말씀묵상과 기도로 예수님을 힘차게 따라갑시다.
- 감사와 은혜의 예배** 펜데믹 가운데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납시다
-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시다.
- 토요 새벽기도** 토요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시다.
-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사순절 새벽예배와 개인 경건의 시간의 기도운동.
 -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 3월의 사역 - 사순절(3/2-4/14) 선교주간(20-26) 선교주일(27)

♥ 3월 영입축하 ♥ 김성배(2) 김윤경(11) 장경미(22)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안전과 건강(특히, 정홍렬목사, 박진성집사, 최윤정양의 회복과 치유)을 위해
3. 교우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며 직장에서 일하도록
4. 자녀의 신앙교육과 Youth Ministry 2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5.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사역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3/13	3/20	3/27	4/3
	최선운집사	박진성집사	최내권집사	구 민집사
주일헌금위원	3/13	3/20	3/27	4/3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3월			4월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붙잡으시다.** / 누가복음 9:51-57

고난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는 반드시 겪어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가르치셨다. 누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며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다고 기록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삶의 무게중심을 잃지도 않고 세상에 한눈을 팔지도 않는다. 십자가 때문에 천국으로 다가가며 그 뒤에 오는 영원한 상급과 칭찬이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인종, 민족, 성별, 신분, 등 그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 차별과 특권에 기반한 분노와 같은 껍데기를 붙잡았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껍데기를 깨뜨리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자답게 살기 / 누가복음 14:15-27

잔치의 주인공은 하나님

초청을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

초청을 받았으나,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들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잔치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들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과 이방인들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답게 기쁨으로 참여하며 살기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자답게 살기 / 누가복음 14:15-27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잔치의 비유를 통해 나는 초청받은 자답게 제대로 살고 있는가. 잔치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참여하지 않자, 잔치의 주인은 화가 나서 종에게 명하여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초대해 빈 자리를 채우도록 명한다. 뜻 밖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한다. 자리가 다 차게 되면 바로 잔치가 시작될 것이다.

첫째, 우리는 받은 초청에 진심으로 응해야한다. 처음에 초청 받고도 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초청에 건성으로 응답했음에 틀림없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초청을 들어 오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잔치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가 받은 초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른 채, 그 초청에 건성으로 응답하고 있다. 반면, 예수님의 초청이 가지는 의미를 아는 이는 자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한다. 또, 잔치에 어울릴만한 모습을 갖추고자 애 쓰고 잔치가 열리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초청에 진심으로 응하는 모습이다.

둘째, 초청을 건성으로 여긴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해결해야 한다.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나중에 못가겠다고 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이유가 있었야 한다. 새로 산 밭에 나가야 했고, 새로 산 소들을 시험하러 가야 했고, 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한 대답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잔치에 참여하기 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하나님 초청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면 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가? 순간의 즐거움을 쫓다가 영원한 기쁨을 놓치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다 내려놓아야한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천국잔치에 어울릴만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 천국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기쁨으로 잔치에 들어 갈 수 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삼과 신앙

왜 그는 유혹 앞에 무너졌는가?

고난이 우리에게 몰락을 가져오는가?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예상하고 준비했다라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극심한 고난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고난을 만나면, 몰락한다. 힘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약한
이유는 기도가 거의 사라지고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강건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미리 앞서가는 기도는 어떠한 유혹에 대해서도 영혼을 준비시켜
준다. 다윗이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유혹에 빠진 것은 그가
옥상에 올라갔던 그날이었을까?

아니다! 역사학자들은 중간에 다윗에게 긴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나는 다윗이 하지 않은 것 한 가지를 알고 있다. 즉 그는 그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밖에 나가 별들을 바라보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물론 그는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 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

따라서 다윗은 유혹이 다가오기 전, 그가 허비했던 시간들의
무게 때문에 쓰러진 것이다. 당신이 기도함으로써 유혹을 미리
예측했다면 유혹은 당신을 해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하지 않았다면 유혹은 틀림없이 당신을 넘어뜨릴 것이다.

예수님을 세번 유혹한 후에, 사탄은 잠시 동안 그분을 떠났다.
왜 그랬을까? 당연히 그 의도는 예수님이 방심하시게 하려는 것
이었다. 마귀가 한동안 당신을 내버려둔다면 당신은 큰 어려움이
없고 무척 행복하며 상당히 영적인 사람으로 지내면서 이렇게
말하기 쉽다. “그래, 다 잘되고 있어.” 그리고 당신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며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당신을
노리고 있다. 따라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러면 당신은 사탄이 올 때를 대비할 수 있다.

항상 승리를 거두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루도 당신에게 몰래
다가오지 않게 하라.

출근길에 뉴스나 뉴스를 읽는 대신 신약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고개 숙여 하나님과 대화하라. 싸울 준비를 하라! 아침에 기도를 아예 건너뛰기보다는 어딘가에서 기도를 부여잡으라.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시를 읊고 계신 게 아니었다. 그분은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셨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다. 그리고 그 때문에 승리하셨다.

절대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기도하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대비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즉 정해진 시간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어느 사건이든 대비하신 것이다.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혹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당신은 의기양양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도가 언제나 이기기 때문이다. - W. 토저, 『기도』

아분리함의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꾸짖지도
거절하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 중간에 포기
하는 사람을 책망하신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서리기서공후야! 극이 극이서우조! 응답은 100 그의 조리기리려! 큰 큰 이의가 증응은! 100년!”

장영권 16차 9차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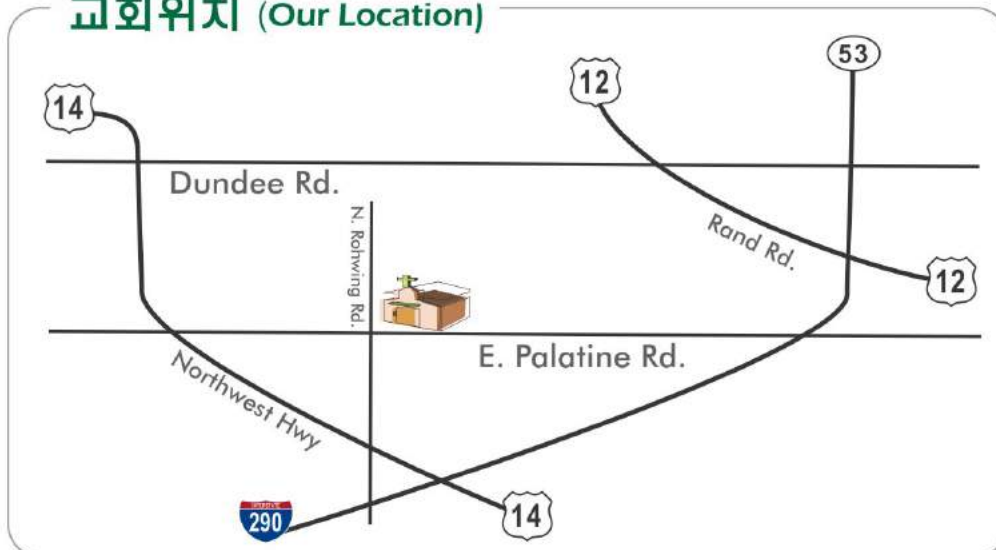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